여수시, 직원 친절교육으로 존중과 배려의 공직문화 조성

직원 300명 대상… 조직 내 소통 강화·민원 응대 역량 향상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13일 여수문화홀에서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 중심의 친절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2026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로 존중하는 조직,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직원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다양한 민원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민원은 명확하게, 감정은 유연하게'라는 주제로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한 긍정적인 조직문화 조성 ▲민원 갈등 상황별 효과적인 응대 방법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 ▲공감과 경청을 바탕으로 한 친절한 의사소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사례로 살펴보고,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직원 스스로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공유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는 직원 간 존중과 배려가 이뤄지는 건강한 조직문화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민원 응대 역량을 높여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친절 표현을 익히는 것을 넘어 민원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와 감정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은 실제 사례를 통해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살펴봤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행정의 원칙을 지키는 자세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또한 직원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공유했다.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조직 분위기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는 취지다. 감정 노동으로 인한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안정의 중요성도 다뤄졌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안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의 친절 의식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정착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여수문화홀에서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여수 시청 제공

순천 승주읍, 김장김치 1,300포기 나눔

순천시 승주읍(읍장 방수진)은 지난 12일 관내 소재한 음식점 광장에서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승주읍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새마을부녀회, 고향생각주부모임 회원들과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에 앞서 참여자들은 절임배추와 김장 양념을 직접 준비했으며, 행사 당일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 1,300포기를 지역 내 경로당 40개소와 취약계층 160여 가구에 전달했다. 김치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겨울철 김장 걱정을 덜게 돼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용운 승주읍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작은 정성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박성현 광양시장, 국회 이어 행안부 방문…재정 부담 낮춘 국비 확보 총력

광양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해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펼친 데 이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2026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연이은 중앙부처·국회 방문은 시 재정 여건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행보다.

시는 국회에서 지방비 대응 부담이 적고 지역 현안 해결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 안전과 생활 기반 개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2026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중로3-36호선(태인대교~망덕) 구조개선공사 ▲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 ▲망덕포구 보행데크 정비사업을 우선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박 시장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대해 설명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3~2024년 보통교부세 감액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와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힘쓸 방침이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산들봄 프로젝트 연계 '찾아가는 문화마실'추진

곡성군은 농촌형 복합사회서비스 모델인 '산들봄 프로젝트'와 연계해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찾아가는 행복충전 문화마실'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죽곡면을 시작으로 오곡면, 고달면, 삼기면, 석곡면 등 5개 면을 순회하며 주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문화시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이웃 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빛마루협동조합의 문화 공연(하모니카·훌라댄스)을 비롯해 곡성자활센터의 이동점빵·이동빨래방, 함께마을교육협동조합의 먹거리 프로그램 등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어우러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순한 소득지원 정책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지역의 돌봄과 생활서비스, 문화활동 등 주민의 일상과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곡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 내 생활 서비스 이용과 연계하는 복합사회서비스 운영 모델 실증사업인 '산들봄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산들봄 프로젝트'는 주민의 생활 속 불편을 발굴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협력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기반의 지속 가능한 생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일규 기자

구례군, 「꽃으로 밝히는 우리가족 행복 무드등」 프로그램 운영

구례군(군수 장길선)은 지난 11일 드림스타트 아동 10가구를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압화 무드등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꽃과 잎 등 자연 소재를 활용한 압화 창작활동으로 지역 내 자연 친화적 요소와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아동과 가족이 지역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압화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다양한 압화를 골라 자신만의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무드등을 꾸몄다.

아동과 부모가 함께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협력함으로써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가족들마다 완성된 무드등을 켜보며 환하게 웃음 짓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체험에 참여한 한 부모는 "아이와 함께 나란히 앉아 예쁜 꽃을 만지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작품을 완성하니 뿌듯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이번 압화등 만들기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우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선섭 기자

